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이신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군 참전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북한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 연구는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사항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실질적인 전투부대였던 공군의 참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공군의 참전배경과 결정과정, 참전의 구체적 실태, 그리고 참전이 북한 공군에 미친 영향과 북한의 참전경험 활용에 대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의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결과에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개척적인 시도로서 향후 추가연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베트남전쟁, 베트남, 북한, 북한 공군, 참전, 파병, 하노이

1. 문제의 제기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fact)이다. 북한은 1964년 9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맞물려 공군 전투부대를 비롯해 심리전과 공병부대 등을 파병했다.¹⁾ 2000년 이전까지 북한과

베트남은 이에 대해 ‘침묵’했지만, 현재는 자신들의 공간물(公文物)을 통해 단편적 수준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2000년 이후 발행된 『김일성전집』을 비롯해 기록영화, 소설 등에서 베트남 파병 사실을 공개하고 있고,²⁾ 베트남도 정부 차원에서 발행되는 전쟁역사서에 이를 밝히고 있다.³⁾ 그러나 아직까지 참전부대의 정확한 종류와 규모, 그리고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베트남전쟁은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비록 한반도와 지리적 거리는 존재했지만, 이 전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파병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연인원 32만여 명의 한국군 파병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미쳤던 파급력을

-
- 1) 일반적으로 참전(參戰)은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고, 파병(派兵)은 군대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군대를 베트남에 보낸 것은 파병이지만, 동시에 베트남전쟁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참전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참전과 파병은 모두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가를 의미한다.
 - 2) 이러한 북한의 공간물로는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1966년 10월 19일 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대화),” 『김일성전집』, 제37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373~384쪽; 김일성, “축하문-조선인민군 제203부대 전투원들에게(1967년 5월 30일),” 『김일성전집』, 제38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462~465쪽; 『예술영화-백옥』(평양: 조선 4·25예술영화촬영소, 2009); 정기중, 『운명』(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등이다.
 - 3) 2016년 현재 베트남 전쟁사에서 북한군 참전사실을 수록한 것은 군사역사연구원과 국가정치출판사에서 편찬한 2종이 확인된다. 이들 내용에는 북한 공군과 심리전부대의 참전을 인정하고 있다. Bo quốc phong VLSQVN, 『Lịch sử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Tập V: tổng tiến công và nổi dậy 1968』(NXB Chính trị QG, 2001);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ã hội chủ nghĩa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1954~1975)』(NXB Chính trị QG, 2000). 이외에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를 소개한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중 대표적으로 “Về 14 chiến binh Triều Tiên trên bầu trời Việt Nam,” 『Tuổi Trẻ CUỐI TUẦN』, 2008년 8월 28일자가 있다.

고려해볼 때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했던 결정적 사건(Crucial Event)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점은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전쟁과 이곳에 한국군의 파병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특히 이 전쟁이 북베트남의 입장에선 반제(反帝)와 반미(反美), 그리고 베트남의 내부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도 단순히 ‘관전’만 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수만은 없었다.⁴⁾ 그 결과 북한은 이전까지 전개했던 제3세계 국가 및 단체들에 대한 재정 및 군사적 지원 차원을 넘어 군대를 파병하면서 베트남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⁵⁾ 비록 북한은 이들을 ‘지원병’이라 부르긴 했지만, 이는 엄연한 정규군이었으며,⁶⁾ 북한 전투부대의 첫 해외파병이었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군대의 참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북한의 소위 ‘군사모험주의’의 동기와 1970년대 들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베트남 참전의 경험과 기억이 김정일 선군정치와 대미대결의 상황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⁷⁾

4)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트남전쟁’이라는 전쟁의 명칭 대신 미국이라는 외세에 대항하고, 내부적으로 남북 베트남의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 ‘항미전쟁’ 또는 ‘항미통일전쟁’으로 부르고 있다.

5) 조셉 버뮤데즈, 『북한과 테러리즘』, 조용관·유지웅 옮김(서울: 고려원, 1991), 62쪽.

6) 2000년 이후 공개된 북한의 『김일성전집』 등에서는 이들을 ‘지원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불충분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일부 연구가 발표된 것에 비해, 국내에선 관련 연구 성과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에서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첫 논문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의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梧)는 2003년 북한군의 참전사실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⁸⁾ 사토루의 연구는 북한군의 파병 배경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로써, 구체적인 참전현황까지 밝히지는 못했지만, 북한군 참전에 관한 첫 연구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 프리브나우(Merle L. Pribbenow)의 연구는 베트남 측 자료를 활용해 북한과 북베트남 간에 공군파병에 관한 협정문건을 발굴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내놓았다.⁹⁾ 그러나 북한의 구체적인 파병 준비나 현지의 전투 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개척적인 연구로써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군 참전에 관한 일부 언론의 탐사성 보도가 있었을 뿐 학술적 차원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⁰⁾

7) 이에 대해서는 이 글 5장을 참조할 것.

8) 사토루는 2003년 이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한 이후 내용을 보완해 2013년과 2014년 추가로 발표했다. 宮本梧,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ベトナム派兵,” 現代韓國朝學會 編, 『現代韓國朝鮮研究』(東京: 新書館, 2003), 58~67쪽; 宮本梧,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とベトナム戦争(1),” 『聖學院大學綜合研究所紀要』, 제55호(2013), 292~310쪽; 宮本梧,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とベトナム戦争(2),” 『聖學院大學綜合研究所紀要』, 제57호(2014), 211~237쪽.

9)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KIDP E-Dossier#2*(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 2011). 저자는 전직 CIA의 베트남 분석관이었다.

10) 이러한 예로는 권쾌현, “북한 베트남 참전사실 확인,” 『연합뉴스』, 2000년 3월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해 국내·외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자료의 한계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 참전의 당사자인 북한과 베트남이 이 문제에 대해 ‘함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적 연구 또한 시도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의 오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북한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진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조각들을 모아 이에 관한 모자이크를 맞추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공군의 참전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연구의 접근성 측면에서 북한 공군은 참전부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사항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¹¹⁾ 둘째,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전투부대는 참전하지 못했던 반면 북한 공군은 참전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군은 연인원 32만여 명이 참전했지만, 공군은 ‘은마부대’로 불린 수송 및 작전지원부대만을 파병했다. 이것은 전투기를 이용한 전투부대는 아니었다. 반면 북한 공군은 전투기를 이용해 미군과 직접교전을 벌이는 전투부대로써, 단순 파병이 아닌 참전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조정훈, “혈맹으로 맺은 북한과 베트남,” 『통일뉴스』, 2015년 11월 29일 등이 있다.

11) 북한 공군 참전에 대해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국내의 언론보도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 북한도 2000년 이후 공간물과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다. 북한 공군 참전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북괴조종사의 월맹 파견,” 『동아일보』, 1966년 12월 23일; “북괴군 월남참전 확인,” 『전우신문』, 1968년 6월 16일; “북괴 전쟁준비 광분,” 『경향신문』, 1968년 11월 30일; “김일성, 북한 조종사들의 월남 참전,” 『경향신문』, 1973년 8월 17일 등이다.

이 연구에서 북한 공군의 참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이다. 첫째, 북한 공군의 참전배경, 둘째, 참전 결정과정, 셋째, 참전시기, 규모, 과정, 작전실행 등 참전의 구체적 양상, 넷째, 참전의 영향과 활용 실태이다. 물론 이에 관한 완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재현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후속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북한연구에서 자료의 부족은 연구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연구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주월(駐越) 한국군의 전투기록¹²⁾과 북한이 발간한 『김일성 전집』,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등이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발행된 역사서와 미국 및 동남아 제3국의 자료 등을 참고했다. 이밖에 제한된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와 소설,¹³⁾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과 회고¹⁴⁾ 등을 활용했다.

-
- 12) 북한군 파병에 관한 당시 한국군 자료현황은 이 논문의 참고문헌 부분을 참조 바람.
 - 13) 북한에서 소설은 단순한 가공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김일성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총서 『불멸의 력사』’ 시리즈는 형식은 비록 소설이지만, 북한당국의 기획하에 만들어진 작품들로, 북한이 공간사에서 제시하지 않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 14) 대표적인 탈북자 증언과 회고로는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고려원, 1993), 177~179쪽; 이웅평, 『기수를 삶으로 돌려라』(서울: 한울, 2000); 이웅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공군평론』 제94호(1994년 9월);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인터뷰 자료(2015.9.4) 등이다.

2. 북한 공군 참전배경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해외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더구나, 이 파병이 전투부대의 참전이라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¹⁵⁾ 그렇다면 북한은 왜 공군 전투부대를 파병한 것일까? 이것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요인이 깔려 있다. 북한 공군의 참전배경은 시기적으로 앞선 공병부대나,¹⁶⁾ 북위 17도선 이남 남베트남 지역의 한국군 전투부대 주둔지역에서 활동했던 심리전부대와¹⁷⁾ 비교할 때 공통점도 있지만, 공군만이 가지는 특별함도 있다. 북한 공군 참전배경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분과 군사적 실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정치적 명분 측면

군대의 해외파병에는 정치적 명분이 제시되게 된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은 ‘제2전선’,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주의 도미노이론’, ‘한국전쟁 당시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등을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다.¹⁸⁾

15) 이런 중요성으로 인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16) 북한은 통킹만 사건 직후 하노이에 갭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을 파견했다.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375쪽.

17)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과 북괴의 심리전활동』(1968).

18) 이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군 해외파병에 관한 동의 요청 내용을 참조바람.

이 점은 북한의 베트남 파병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공군파병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성명을 통해 나오고 있었다. 특히 시기적으로 한국군 파병과 맞물려 있었다. 한국군은 이른바 통킹만(The Gulf of Tong Kin) 사건직후인 1964년 9월 140명으로 편성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1차로 베트남에 파병했다. 이어서 2차로 1965년 2월 공병과 수송부대로 이루어진 2000명 규모의 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을 파병했다. 1965년 10월에는 3차로 전투부대의 파병을 시작했다.

북한의 베트남 지원 및 파병의사도 1965년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1965년 한 해에만 14차례나 확인되고 있다.¹⁹⁾ 당시 북한의 성명은 주로 한국군 파병에 대한 비난과 경고, 베트남에서 미군의 행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북베트남에 대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정신적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었다. 특히 북한 인민들이 ‘지원군’으로 가겠다는 탄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도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항상 북한의 베트남 지원은 ‘북베트남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붙이곤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기 위한 정치적인 명분 축적의 성격이 짙었다.

북한의 군대 파병에 대한 정치적 명분에 대해 김일성은 1966년 10월 19일 제203군부대를 찾아 ‘비행사’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했다. 그는 파병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의 베트남 파병이 ‘승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19) 1965년도 조선중앙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북한은 공화국 성명, 최고인민회의 결정, 비망록, 김일성의 외국기자들과의 회견 및 연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1966~196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고, 이것이 미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성의 군대과병에 관한 언급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제주의적 의무’라는 말로 대변되었다. 김일성은 북한 공군의 과병이 “반제 역량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⁰⁾ 북베트남이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여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권의 ‘국제주의적 의무’라는 것이다.²¹⁾

김일성의 ‘국제주의적 의무’ 속에는 미국에 대한 대항, 즉 반미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옮겨 베트남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천명했다.²²⁾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베트남지원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북한이 북베트남에 지원병을 과병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전투부

20)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373쪽.

21) 북한의 정치용어 사전에는 ‘국제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제도의 전복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의 사상이며, 배타주의와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49쪽.

22)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376쪽.

대 파병이 사회주의권에게 자극이 되고, 독려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된다”고 강조했다.²³⁾ 이것은 당시 중·소 갈등으로 인해 북베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원이 이를 독려할 수 있다는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²⁴⁾

북한의 베트남 파병은 이상의 김일성이 언급한 것 이외에도 당시 북한과 북베트남의 친밀한 양국관계에서도 그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양국은 한국전쟁 개전 직전인 1950년 1월 31일 수교한 이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1957년과 1958년에는 호찌민(Ho Chi Minh)과 김일성이 평양과 하노이(Hanoi)를 방문하며 양국 교류의 수준을 최정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이를 반영하듯 1957년부터 1965년까지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도 총 27건에 이르렀다.²⁵⁾ 또 1969년 6월 11일에는 민족해방전선이 수립한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PRG)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평양에 기존의 북베트남, 즉 베트남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대사관 이외에 PRG의 대표부가 별도로 신설되었다.²⁶⁾ 이것은 북한과 북베트남, 또 북한과 민족해방전선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병한 것은 한반도에서 미

23) 김일성, 위의 글, 374~376쪽.

2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30쪽.

25) 북한과 베트남이 수교한 1950년부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군하는 1973년까지 확인된 협정 수는 총 61건이다. 국회도서관 자료국, 『북한의 조약집(1949~1982)』(서울: 국회도서관, 1982); 국가안전기획부, 『북괴조약집II』(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88) 참조.

26) ‘민족해방전선(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란 우리가 흔히 ‘베트콩(Vietcong)’으로 부르던 조직으로 북한은 이를 ‘남부 월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칭했다. 또한 당시 베트남을 남한에서는 ‘월남(越南)’으로 표기했지만, 북한은 ‘월남’으로 표기했다.

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제주의적 의무를 실천하고, 반미, 반제를 실천으로 옮기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권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촉진시킨다는 정치적 명분 속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2) 군사적 실리 측면

북한의 공군 파병은 정치적 명분 못지않게 군사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군대의 파병은 일방의 파병에 대한 제안(또는 요구)과 다른 일방의 이에 대한 수용이 서로 합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 공군의 파병은 북한만의 일방적인 제안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것은 북베트남 측에서도 북한 공군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 파병에 대한 의견이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측을 파병에 합의하게 했을까? 이것은 베트남 전쟁의 공중전 상황과 북베트남의 공군전력 현황, 그리고 당시 북한 공군의 전력수준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먼저, 베트남전쟁의 공중전 양상과 북베트남 공군전력의 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1965년 3월 이후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공중폭격을 감행했다. 이른바 미군의 북폭(北爆)이었다.²⁷⁾ 이로써 베트남전쟁의 주전장은 북위 17선 이남의 남베트남지역이었지만, 적어도 공중전에서는 북베트남지역까지 전장이 확대된 것이었다. 당시 미군은 동중국해상의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함재기(艦載機), 태국과 남베트남 공군기지의 전투기 및 폭격기, 그리고 괌(Guam)에서 출격하는 B-52전략 폭격기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공중폭격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중 북

27) 미군의 당시 북폭에 대해서는 유제현, 『월남전쟁』(서울: 한원, 1992), 208~215쪽 참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군사적 요충지였던 하이퐁(Hai Phong) 항구를 폭격하던 전력은 항공모함 상의 함재기와 B-52전략폭격기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의 북폭에 대항할 북베트남의 공군력은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항공기는 소련의 지원으로 확보했지만, 아직 상당수의 조종사가 소련 현지와 북베트남에 파견된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휘하에 양성과정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에게 조종사 파병도 요청했지만, 전쟁의 확전을 우려했던 중국과 소련은 이를 거부하고, 전쟁물자를 지원하기만 했다.²⁸⁾ 북베트남의 입장에선 사회주의 진영의 공군조종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공군의 존재는 절대로 필요했다. 특히 북한 공군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고,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과의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고려요소가 되었다.²⁹⁾

다음으로, 당시 북한 공군의 전력수준과 전투경험에 대한 필요성이 다. 당시 북한 공군의 전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북한 공군은 한국전쟁 당시 개전 3개월도 못되어 미 공군에 의해 궤멸되었지만, 전쟁기간 소련과 중국에서 자체 양성과정을 거쳐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전력이 상승한 상태였다.³⁰⁾ 1966년

28) Xiaoming Zhang, "Communist Powers Divided: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Vietnam War," Lloyd C. Gardener and Ted Gittinger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Vietnam*(Texas: A&M Univ. Press, 2000), p.90.

29)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에서는 북한의 한국전쟁 경험을 담은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것은 베트남이 북한의 대미 전쟁경험을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로 볼 수 있다. 도미엔,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군사』, 제96호(2015), 340~341쪽.

30)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 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군사』, 제89호(2013), 197~

당시 북한 공군은 총 3만 5000명의 병력과 약 68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4개의 전투기 사단, 1개 폭격기사단, 1개 정찰기 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³¹⁾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의 중요한 측면인 실전 경험은 부족한 상태였다.

김일성은 1966년 10월 파병 준비 중인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파병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김일성은 이 파병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싸움준비’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군대는 총소리도 들어보고 화약 냄새도 맡아 보아야 한다. 정전 된 지 13년이 지난 만큼 미국의 전술이 많이 변했을 것이니 이들의 전술도 직접 싸워보고 알아내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전술을 연구하라”고 지시한다.³²⁾ 즉, 군사적으로 실전능력을 배양하고, 미군의 전술을 체험 및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소련이 지원한 전투기를 이용해 항공유 등의 제약 없이 실전연습을 해본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미국과 남베트남 공군의 하노이 폭격이 이루어지는 전장상황이었지만, 북베트남의 낮은 공군력과 중국과 소련의 조종사 미 지원이라는 북베트남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공군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또 북한으로서도 정전협정 이후 구축한 공군력의 실전 경험

232쪽. 당시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능력에 대해 탈북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들은 조종사를 A+, A0, A-, B, C, D 등으로 분류했는데, 북한 조종사들은 A등급으로 높았고, 일부는 A+등급에 가까웠다고 한다. 전 북한 공군 조종사 A씨 증언(2015.9.4).

31) 국방부 기획국, 『국방백서 1967』(서울: 국방부, 1966), 53쪽; 국방부 기획국, 『국방백서 1968』(서울: 국방부, 1968), 44쪽.

32)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379~380쪽.

을 쌓는 차원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북한 공군의 참전은 북베트남 측의 요구와 북한의 희망이 군사적 실리 측면에서 합치되어 성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 공군 참전 결정과정

그렇다면 북한 공군의 참전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일까? 현재까지 참전 결정과정에 대해서 일부 단편적인 기록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베트남 참전 결정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단편적인 사실들과 함께 파병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파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한국군의 파병이다. 그 이유는 북한군도 파병과정에서 한국군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까지 북한군의 참전 결정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건은 세 가지이다. 이들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 프리브나우가 발굴한 베트남 측 자료에 따르면 1966년 9월 21일 베트남의 지암(Vo Nguyen Giap) 장군이 의장인 베트남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북한 공군 파병에 관한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되어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공군사령관 타이(Phung The Tai)는 북한이 공군부대 파견을 제안해 왔다고 보고했고, 이것을 공산당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6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북한군 총참모장 최광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서 파병문제에 대해 협의 후 6개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다.³³⁾

둘째, 북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2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를 개최했고, 이 대회에서 “월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성명”을 발표했다.³⁴⁾ 이후 김일성은 1966년 10월 19일 파병 준비 중인 제203군부대를 찾아서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파병을) 결정했다”³⁵⁾고 밝힌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 이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북한에서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불멸의 력사』’ 시리즈 중 ‘장편소설 『운명』에 파병 당시 상황이 그려져 있다. 소설에 따르면, 북한은 1966년 8월 14일 베트남에 보낼 비행부대의 편성을 완료한다. 그리고 김일성의 지시로,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본대는 당 대표자회가 끝난 뒤에 보내기로 결정한다.³⁶⁾

또 소설에는 8월 14일 파견부대의 편성보고 이전에 호찌민으로부터 공군지원 요청이 왔고, 이에 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³⁷⁾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내용상 베트남의 파병 요청과 정치국 비상회의는 1966년 6월 무렵에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군 참전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당시

33) 6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pp.2~4 참조.

34) “월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성명(1966년 10월 12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66~1967)』, 130~131쪽.

35) 김일성, 위의 글, 373~384쪽.

36) 정기중, 『운명』, 340쪽. 소설에는 선발대장으로 박남훈 대좌가 임명되는데, 그는 1950년 여름부터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했고, 전쟁 말기엔 MiG-15기로 미 공군 B-29기 등 적기 5대를 격추한 공화국 영웅으로 나와 있다.

37) 정기중, 위의 책, 274, 280쪽.

한국군의 파병과정을 참고적으로 살펴보자.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크게 비전투부대와 전투부대의 파병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파병 때마다 절차는 동일했는데, 그 전개과정은 ① 남베트남 현지의 한국 대사관과 남베트남 정부 간 사전실무 논의, ② 남베트남 수상 명의의 파병요청서 접수, ③ 한국 국회에서 군대의 해외파병 동의, ④ 남베트남 현지에 조사단 파견 및 남베트남 측과 파병 협정체결, 그리고 국내에서 파병부대 편성, ⑤ 조사단의 귀국 이후 군대의 실제파병 순이었다.³⁸⁾ 즉, 파병이 양국 간의 사전 실무협의, 외교적 요청, 내부적 승인, 실제 군대의 파병 순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자료와 정황, 그리고 한국군 파병사례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한 공군의 참전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고 전개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공군 참전을 북베트남이 먼저 요청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제안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과 베트남 측 자료는 각각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제안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북베트남이 이미 중국과 소련에 공군 참전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도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북한자료에 나오는 1966년 6월 전후로 볼 수 있다.

둘째,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군지원 요청을 받고, 북한은 당 정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 후 파병의 규모를 1개 비행연대로 결정한다.³⁹⁾ 그리고 곧바로 파병부대 편성에 돌입해 8월 14일 편

38)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및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신재, “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군사』, 제96호(2015), 283~322쪽 참조.

39) 정기중, 『운명』, 275쪽.

<표 1> 북한 공군 베트남 참전 결정과정 재구성(1966년)

순서	시기	내용
1	1966년	북베트남 → 북한에 파병 제안
2	6월경	노동당 정치국 비상회의, 베트남 측 요구사항 논의/결정
3	8월 14일	파병부대 편성 완료(훈련 돌입)
4	8월 말	선발대 파견(대장: 대좌 박남훈)
5	9월 21일	베트남공산당 내부 보고 및 승인
6	9월 24~29일	북한대표단(단장: 최광 총참모장) 베트남 현지조사
7	9월 30일	북한과 북베트남 간 파병관련 협정 체결
8	10월 5~12일	북한, 당대표자대회 개최 - “월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성명” 채택(10.12) -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파병 최종결정(추정)
9	10월 19일	김일성, 파병준비 중인 제203부대 방문
10	11월	북한 공군 1차 부대 베트남 파병(11월), 2차(12월), 3차(1967년 초)

성을 완료한다. 이후 선발대로 본대의 지휘관인 박남훈 대좌를 8월 말 베트남으로 보내고, 9월 중순 최광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베트남에 보내 현지조사와 함께 베트남 측과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다.

셋째, 10월 5~12일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이 사항을 설명하고, 대외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또 당대표자회 기간 중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파병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베트남 양측이 파병문제를 비밀로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병사실을 성명에 담지는 못했을 것이다.⁴⁰⁾ 북

40) 당시 당대표자회에서 채택된 성명에는 북베트남에 대한 ‘전투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월남에 지원병을 보내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북한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이며, “언제나 지원병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성명(1966년 10월 12일),” 130~131쪽.

한 소설 『운명』에서는 이 성명에 대해 “지원병의 파견이 세계에 선포된 것이다”라고 했으나, 실제 성명서 내용에 파병결정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이어서 10월 19일 김일성은 파병 준비 중인 제203 부대를 방문, 이들을 격려한다. 파병부대 제1진의 실제 베트남 출발은 11월에 이루어진다. 이상이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정이며, <표 1>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 북한 공군의 참전실태

1) 참전기간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은 언제일까? 이에 대한 베트남과 북한 측 자료는 상이하다. 먼저, 베트남 측 자료 중 북한 공군의 참전사실을 기술한 자료는 두 가지이다.⁴¹⁾ 베트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군사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역사서에는 북한이 1967년부터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⁴²⁾ 베트남 하노이 국립인문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마이화(Nguyen Thi Mai Hoa)는 1966년 10월 20일부터 북한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했고, 1966년 12월 15일 첫 교전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⁴³⁾

41) 이외에 베트남 현지 언론보도가 있으나, 여기서는 1965년으로 적고 있다. 『Tuổi Trẻ CUỐI TUẦN』, 2008년 8월 28일.

42) Bo quốc phòng VLSQVN, 『Lịch sử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Tập V: tổng tiến công và nổi dậy 1968』, pp.269~271.

43)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ã hội chủ nghĩa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1954~1975)』, p.317.

북한 측 자료에도 구체적인 파병일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김일성전집』에는 김일성이 1966년 10월 19일 파병 준비 중인 조종사들과 대화한 것이 기술되어 있고,⁴⁴⁾ 1967년 5월 30일, 김일성이 5월 20일 전투에서 미군기를 격추한 것에 대해 축하문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⁴⁵⁾

파병시기에 대한 또 하나의 북한자료인 소설 『운명』에는 본대 파병에 앞서 선발대가 3개월 먼저 파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1966년 8월 14일 파병부대 편성을 마쳤고, 8월 말 파병부대의 지휘관인 박남훈 대좌를 대장으로 하는 선발대를 먼저 베트남에 보냈다는 것이다. 선발대의 임무는 “북베트남의 당과 정부, 그리고 군대 간부들과 안면을 익히고, 전쟁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투준비”였다.⁴⁶⁾

이에 대해 프리브나우는 북한과 베트남 측의 협정내용을 토대로 파병이 최소 3차로 나뉘어 전개되었다고 했다.⁴⁷⁾ 즉, 1차는 1966년 10월 말에서 11월 MiG-17 비행중대(중대당 전투기 10대) 병력, 2차는 1966년 말에서 1967년 초 MiG-17 1개 중대병력, 3차는 1967년 중으로 MiG-21 중대 병력의 파견이었다. 특히 2, 3차는 베트남에 전투기가 준비되는 것과 연동하여 파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북한, 베트남, 미국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북한 공군의 베트남파병은 1966년 8월 14일 파병부대 편성이 완료되고, 선발대가 8월 말 먼저 베트남에 파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대는 3개

44)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373쪽.

45) 김일성, “축하문 조선인민군 제203부대 전투원들에게(1967년 5월 30일),” 462~465쪽.

46) 정기중, 『운명』, 340쪽.

47)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pp.3~4.

월간 황주비행장(제203군부대)에서 3개월간 파병준비를 거쳤다.⁴⁸⁾ 그리고 베트남현지에 전투기와 파병 수용준비가 끝나는 1966년 11월 1차로 본대가 파병되었고, 이들은 1966년 12월 15일 첫 교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이 제203군부대를 찾은 1966년 10월 19일은 파병준비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은 파병 조종사들을 약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순환배치하며 파병했다.

그렇다면 북한 공군은 언제까지 베트남에 주둔했을까? 이 부분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프리브나우는 1969년 무렵까지 주둔했다고 하고,⁴⁹⁾ 마이화도 1969년까지 주둔했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 박장(Bac Giang)에 위치한 북한 공군 조종사 전사자 묘지의 묘비에도 가장 늦은 사망일자는 1968년 2월 12일이다.

그러나 탈북조종사들의 증언은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북한 공군이 베트남전쟁이 종전될 때까지 베트남에 주둔했다는 것이다. 전 북한 공군 조종사였던 A씨는 베트남전쟁이 종전될 때인 1972년 무렵까지 주둔했다고 증언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 있을 때 북한 공군의 베트남파병 당시 촬영했던 전투 및 활동 동영상 기록들을 조종사 양성 교육 때 활용하는데 당시 1972년까지의 영상을 보았다는 것이다.⁵⁰⁾ 베트남 연구자 도미엔(Do Mien)도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에는 1960년부터 1974년까지 북베트남이 북한전문가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관련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했다.⁵¹⁾

48)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2015.9.4). 제203부대는 황해도 황주비행장이며, 황주는 이후에도 계속된 교체병력들의 교육장소였다.

49)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p.1.

50)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결국 베트남과 북한 측이 자료의 완전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공군 주둔시기는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 공군의 참전목적 중 하나가 미 공군에 대한 대항이라는 측면에서 1969년까지의 주둔은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전 직전인 1972년 12월에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폭격’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하노이 공습을 감행했다. 따라서 북한 공군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 조인으로 전쟁이 종전될 무렵까지 주둔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2) 참전규모

북한 공군의 파병규모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베트남 측 자료 중 파병규모에 대해 언급은 마이화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베트남 국방부사료를 근거로 1966년 10월 20일부터 1969년까지 총 384명의 북한 공군이 파병되었고, 그중 전투기 조종사는 96명이라고 주장했다.⁵²⁾ 베트남 현지 언론은 전 베트남 공군 장군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총 87명의 조종사가 파병되었다고 보도했다.⁵³⁾

이에 반해 북한 공군조종사 출신 등 일부 군관련 탈북자들의 증언은 베트남 측 자료와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파병규모에 대해서는 ‘1개 비행연대’라는 주장이 공통적이다. 전 북한군 총정치국 정치장교였던 탈북자 B씨는 북한이 ‘비행연대’ 규모를 파병했다고 증언했

51) 도미엔,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군사』, 제96호(2015), 330~331쪽.

52) Nguyễn Thị Mai Hoa, *Op. Cit.*, p.317. 이 자료에는 북한 공군 이외에도 북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심리전 전문가 및 방송전문가의 숫자를 35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53) 『Tuổi Trẻ CUỐI TUẦN』, 2008년 8월 28일.

고,⁵⁴⁾ 전 북한 공군 조종사 이웅평도 1개 비행연대 병력을 파병했다고 밝히고 있다.⁵⁵⁾ 전 북한 공군 조종사 A씨는 김일성이 방문했던 제203군부대는 황주비행장에 위치한 비행연대라고 증언했다.⁵⁶⁾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북한 공군의 파병규모는 1개 비행연대가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행연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966년 9월 30일 북베트남과 북한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는 총 30대의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온다. 구체적인 인원은 나오지 않지만, 전투기 1대 당 조종사 2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조종사는 총 6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탈북 조종사 A씨도 북한 공군 1개 비행연대에는 약 60명 정도의 조종사가 편성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베트남전쟁 동안 연인원(延人員) 800명의 조종사가 파병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⁷⁾ A씨에 따르면, 북한은 참전 조종사들을 계속해서 순환시켰으며, 그 결과 최대 7번을 참전한 조종사도 있다고 한다. 참전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은 귀국한 후 다시 황주비행장에서 훈련과정을 거쳐 재파병되었다. 파병, 귀국, 훈련, 재파병, 귀국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조종사와 신입조종사를 혼합 편성해서 공중전에 나섰다고 한다.

북한 공군의 파병규모에 대해 이웅평은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다. 이웅평은 베트남전쟁 전 기간 동안 총 203명의 조종사가 파

54) 탈북자 B씨(전 북한군 총정치국 정치군관) 증언.

55) 이웅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공군평론』 제94호(1994), 241쪽

56)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57) 탈북조종사 A씨의 조종사 800명 파병은 1966~1972년까지 7년간 파병된 연인원으로, ‘1회 60명×연 2회 교체(기본)×6년(1967~1972년)+1966년 후반부 인원’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병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⁸⁾ 이점은 탈북조종사 A씨가 연인원의 개념으로 800명을 주장한 것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북한 공군의 전투기 사단은 4개였다.⁵⁹⁾ 이를 고려할 때 전투기 조종사의 숫자는 720명[1개 연대 60명×3개 연대(1개 사단)×4개 사단] 정도였다. 즉, 700여 명의 전투기 조종사 중 203명가량이 파병에 나선 것이다. 이 정도 규모는 북한이 자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공군의 파견규모를 정했다고 밝힌 만큼 타당한 규모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 비행연대 파병에는 조종사만 간 것은 아니었다. 비행연대에는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부속된 요원들도 파병되었다. 이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지휘관 및 참모요원, 정비사, 관제사, 그리고 군수지원 요원, 의료요원들이 있었다. 또 북한군 편제의 특성상 총정치국 소속의 정치장교와 보위부 요원도 있었다. 이밖에 공군 파병 및 전투를 기록하고 촬영하는 요원, 관제탑에서 미군 교신 내용을 통역하는 통역요원, 베트남어 통역요원 등도 추가되었다.⁶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북한은 1회 파병 시 약 60명의 조종사와 최소 50명 이상의 지원인력 등 최소 100여 명 이상을 파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전 기간에 걸쳐 이들이 순환 근무한 것을 고려해보면 북한 공군은 조종사를 포함하여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전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58) 이웅평, 『기수를 삶으로 돌려라』, 148쪽

59) 국방부 기획국, 『국방백서 1967』, 53쪽.

60) 북한은 미 공군의 훈련 시 이를 감청해서 관제사에게 알려주고, 관제사는 북한 조종사들에게 적(미군)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관제통역’ 요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외국어대학을 최상위권으로 졸업한 인재들이라고 한다.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3) 주둔지와 작전양상

북한 공군의 베트남 현지 주둔지는 두 곳이었다. 이것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협정내용에 따른 것이다. 1966년 9월 30일 체결된 협정에는 북한 공군 비행연대가 편성되기 전까지는 독립중대로 편성해서 베트남 공군연대에 배속해 해당 연대비행장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3개 중대로 편성된 비행연대가 완편되면 별도의 연대비행장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⁶¹⁾

그렇다면 북한 공군의 베트남 주둔지는 어디였을까? 1차 주둔지는 하노이 북서쪽에 위치한 노이바이(Noi Bai) 비행장이었다.⁶²⁾ 이곳은 현재 하노이 국제 및 국내공항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이후 제2차 주둔지는 하노이 북동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캅(KEP) 비행장이었다. 이곳은 북베트남 공군 제923비행연대의 주둔지이기도 했다. 북한이 2차 주둔지로 이동한 것은 1967년 8월로 보인다.⁶³⁾

북한 공군은 파병기간 대부분을 캅 비행장에 주둔했다. 이곳은 하노이로 부터는 약 60km 떨어져 있으면서 미군의 주된 공격을 받고 있던 항구도시 하이퐁과도 직선거리로 50~60km 정도 위치한 곳이다.⁶⁴⁾

61)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p.4.

62) 북한 소설에는 1차 주둔지가 '노이밭'이라고 나온다. 이곳은 노이바이를 말하며, 현재 하노이 국제공항이다. 북한 공군은 1966년 말 파병되어 이곳에 처음 주둔하다 캅 기지로 옮긴 것이다. 정기중, 『운명』, 398쪽.

63) 정기중, 앞의 책, 431쪽. 소설 내용을 추정해볼 때 이때로 볼 수 있음.

64) 60km는 현재 휴전선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이다. 이는 전투기 비행시간으로 약 10분 이내의 거리다. 캅 비행장에서 박장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0km정도 떨어져 있다.

북한 공군의 베트남에서의 작전은 주로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하노이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 공군의 주 교전상태는 동중국해 상에 위치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상의 함재기와 꺾에서 이륙해 하노이와 하이퐁을 공습했던 B-52 전략폭격기였다. 그리고 이들의 주 교전장소는 비행경로상 하이퐁 해상이었다.

당시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양상은 미국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합동조사위원회의 베트남전쟁 워킹그룹(Vietnam War Working Group)에서 밝힌 자료에는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 공군에 관한 사항이 확인된다.⁶⁵⁾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1967년 4월 19일 공중전에서 북한조종사들이 조종하는 MiG-17전투기 8대가 적기들 속에서 확인되었고, 1967년 4월 24일 전투에서는 미군 전투기 1대가 북한조종사에 의해 피격되었다. 또 1967년 4월 한 달 동안 북한과 북베트남 조종사에 의해 22대의 미군기가 피격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1967년 8월 23일 전투에서는 노이바이 기지에서 이륙해 초계비행(Combat Air Patrol) 중인 MiG-17도 북한군 조종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북한 공군조종사들은 1968년 1월 14일과 2월 12일에도 목격되었다.⁶⁶⁾

당시 북한 공군이 주로 사용한 전술은 일명 ‘YO전술’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투기가 영어의 Y자처럼 직하강하다 직상승하여 O자

65) 이 합동 조사위원회(Joint Commission)는 1992년 부시(George W. Bush) 미 대통령과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 간에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냉전시기 전쟁에서 발생했던 양국의 포로 및 전쟁실종자에 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66) *Comprehensive Report of the U.S. Side of the U.S.-Russia Joint Commission on POW/MIA*(1996.6), pp.62~70.

모양으로 기동하는데서 유래되었다. 또 공중매복이라 불리는 전술도 구사했는데, 이는 주로 B-52 전략폭격기가 호위기들과 함께 하이퐁과 하노이 지역으로 공격해오면, ‘공중매복’ 상태에 있다가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⁶⁷⁾ 공중매복이란 적이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은밀히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전투방식이었다. 공중매복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이동 중의 적과 계획적인 전투를 시도함으로써 선제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⁶⁸⁾

그러나 당시 북한 공군 전투조종사들은 초창기에는 ‘하노이 상공을 평양처럼 방어하라’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들어 적극적으로 교전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노이’와 ‘평양’이 다르다고 생각해 소극적인 작전을 전개했다고 한다.⁶⁹⁾

4) 전과와 손실

베트남전쟁 기간 북한 공군이 이룩한 전과와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베트남 공식역사서에는 공식전과에 대한 기록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미 우드로윌슨센터의 연구서에는 북한군과

67)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이용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242쪽.

68) 공중매복의 종류에는 매복을 진행하는 장소에 따라 공중대기매복, 지상매복으로 구분하며, 매복의 형태에 따라 기중매복, 유인매복, 대기매복으로 구분한다. 이용평, 위의 글, 231쪽.

69) 이용평, 위의 글, 242쪽;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에 따르면, 파병이 진행되면서 북한 조종사들도 북한의 가족들 생각 때문에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당국은 1970년 초부터는 결혼한 조종사는 보내지 않고, 총각들만 보냈는데, 이들 나이는 대개 23~25세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25살짜리가 계급은 대위였지만 대대장 직책을 수행했다고 한다.

함께 복무했던 북베트남 퇴역장군의 증언을 토대로 1967년과 1969년 초 사이에 북한 공군이 미군기 26대를 격추했다고 했다.⁷⁰⁾ 물론 이 자료의 근거는 베트남 언론보도이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20일 전투에서 과병 간 공군부대가 미군기 10여 대를 격추한 것을 축하해주는 축하문을 보내기도 했다.⁷¹⁾

탈북 조종사 A씨는 또 1969년 5월 28일 미군과의 공중전에서 8기의 MiG-17이 미군 팬텀(Phantom)기 12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증언한다. 이 날짜를 따서 철군 후 북한에는 이 날짜에서 이름을 붙임 ‘528비행연대’가 창설되었다고 한다.⁷²⁾ 그러나 참전 기간 북한 공군의 전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 미국, 북한, 탈북자 등의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 공군의 전과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이다. 베트남과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군 전사자의 수를 14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은 하노이 북동쪽에 있는 박장지역의 전사자 묘비가 14개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묘비에는 전사자 이름, 출생지, 출생일, 희생일이 한글과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다. 북한군 전사자 묘비에 따르면, 가장 이른 시기에 전사한 이는 1965년 9월의 원홍상⁷³⁾이다.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1967년 12명,

70) 『Tuổi Trẻ CUỐI TUẦN』, 2008년 8월 28일.

71) 김일성, “축하문-조선인민군 제203부대 전투원들에게(1967년 5월 30일),” 462~465쪽.

72)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73) 원홍상은 전사시기가 북한 공군 참전시기보다 1년 이상 앞선다. 그리고 전사 당시 나이도 만 19세로 북한에서 조종사가 되기에는 너무 어린나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볼 때 원홍상은 조종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정비사일 가능성도 낮다. 북한이 보냈던 선발대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원홍상은 김일성이 언급했던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 직후 북한이 하노이에 갇도를 파는

<표 2>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묘비 기록⁷³⁾

순번	성명	출생지	출생일	희생일
1	원홍상	평남 숙천군 상평리	1946년 4월 25일	1965년 9월 24일
2	김광육	함북 화성군 태동리	1932년 5월 22일	1967년 3월 10일
3	김원환	평남 순천군 만곡리	1936년 10월 21일	1967년 4월 10일
4	차순해	평남 평성군 백석리	1938년 1월 25일	1967년 4월 21일
5	박동준	함북 은성군 서흥동	1939년 1월 24일	1967년 5월 1일
6	리창일	함북 청진부 관해동	1937년 5월 18일	1967년 5월 1일
9	신달호	함북 회령군 은립리	1938년 2월 3일	1967년 5월 16일
8	김태준	함남 홍원군 천중리	1938년 3월 28일	1967년 6월 3일
9	림춘진	평남 남포시 중비석동	1945년 8월 15일	1967년 6월 26일
10	리동수	함남 홍원군 천중리	1937년 6월 4일	1967년 7월 21일
11	리도인	평북 룡천군 동삼리	1938년 1월 15일	1967년 7월 21일
12	림장환	함북 경성군 일향리	1929년 12월 18일	1967년 9월 30일
13	김경우	평남 안주군 상창리	1937년 12월 20일	1967년 10월 18일
14	김기환	평남 선천군 룡안리	1936년 1월 5일	1968년 2월 12일

1968년 1명이다. <표 2>는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의 묘비 상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공군 파병기간 중 손실된 인원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에 대해 전 북한군 조종사였던 이응평은 67명의 조종사가 파병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⁷⁵⁾ 또 같은 조종사인 탈북자 A씨는 약 80명 정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⁷⁶⁾

것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했던 공병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홍상은 공군 전사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74) 묘비의 이름 중 7명은 소설 『운명』에도 등장한다. 이 중 3명(김태준, 리동수, 김경우)은 이름이 일치하나 4명은 약간 상이한데 묘비명과 소설 속 이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김기환(리기환), 림장환(림장안), 리도인(리도익), 김원환(김원환)이다. 소설에는 림장환이 중좌이고 부연대장으로 나온다.

75) 이응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241쪽.

76)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A씨는 베트남 현지의 묘지에 묻힌 조종사들은 착륙과정에서 전사했거나 또는 육지에서 비상탈출(Ejection)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일 것으로 단언한다.⁷⁷⁾ 즉, 북한 공군이 미군과 주 교전을 벌인 하이퐁 항구 또는 바다 상공에서 피격 당해 바다에 추락하거나 하늘에서 산화한 조종사들은 이곳에 묻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놓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군복 등을 이용해서 북한에 묻혔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 공군이 조종했던 MiG-17기의 경우 비상탈출 기능이 좋지 않아 조종사의 다리가 절단되어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전사 시기는 전사자 묘비를 근거로 할 때 1967년에 3~10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66년 12월 15일 첫 교전이 시작된 후 3개월 뒤부터이다. 베트남의 북한군 전사자 묘비를 근거로 한다면 1968년에는 2월 12일 1명이 전사한 이후 전사자가 없다.

북한조종사들의 손실이 1968년 이후 없거나 또는 줄어든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운번제로 계속 순환하면서 조종사들의 현지적응과 전투경험의 축적에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 7번을 파병 온 조종사가 있다는 점은 이를 짐작케 한다. 둘째, 북한 조종사들의 소극적인 전투행위 때문이다. 파병 초기에는 ‘하노이를 평양과 같이 사수하자’는 구호를 회의 때마다 떠들었지만 이후 조종사들은 뒤에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한다. ‘왜 우리가 하노이를 평양처럼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가?’, ‘하노이는 하노이고, 평양은 평양이다’라는 식으로 소극적 입장이었다는 것이다.⁷⁸⁾ 이러한 생

77) 북한소설 『운명』에 묘사된 북한조종사들의 사망 당시 전투상황도 바다에 추락하거나 공중에서 피격된 상황보다는 산에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은 자연스럽게 전투에서도 소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셋째, 미군의 북쪽이 1968년 이후 미국과 북베트남 간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이전보다 치열하지 않았던 측면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5. 참전의 영향과 경험의 활용

1) 전력증강과 전술의 변화

전쟁은 군사력 발전의 시작이자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북한의 한반도 무력통일에 대한 시도로 촉발된 한국전쟁은 북한의 군사력을 재편하고 새로운 군사력 건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과 현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 점에서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경험도 군사력 건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점에서 베트남전쟁 참전이 북한 공군에 미친 영향은 공군력 강화와 전술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공군에 대한 관심은 베트남전쟁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69년 12월 18일 비행기 한 대당 조종사가 2~3명씩 되도록 인원을 확충하라며 조종사 추가 양성을 지시한다. 그리고, 조종사 역량을 2~3배 더 발휘하게 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이것은 조종사들이 참전해서 실전을 겪고 난 후 내린 것으로, 이로 인해 신입조종사 양성규모도 한번에 400여 명의 인력을 교육할 수

78) 이용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242쪽.

있도록 변화되었다.⁷⁹⁾ 그리고 이를 통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공군부대 창설과 비행사 역량 증강에 열을 올리며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 공군의 참전 이후 눈에 띄는 전력변화는 황해도 곡산기지의 신설이다. 탈북 공군조종사 A씨에 따르면 곡산기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공군부대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북한은 베트남 전장에서는 소련이 지원한 MiG 전투기를 가지고 전투했지만, 철군 시 이 전투기를 가져오지는 못했다.⁸⁰⁾ 그러나 북한으로써는 실전경험이 있는 조종사를 보유하게 되었고, 1970년대 초 소련으로부터 Su-7 전투기를 지원받아 새로운 비행연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곳의 비행연대는 제528비행연대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528’은 1969년 5월 28일 북한이 MiG-17 8대로 하노이를 공습하려고 했던 미군 전투기 32대를 방어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날 전투에서 북한 공군은 미군 전투기 12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처음에 제528비행연대는 순천비행장에 대대급으로 있었는데, 후에 연대급으로 증설된 후 곡산기지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⁸¹⁾

북한은 베트남전쟁에서 익힌 공군의 참전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강구했다. 북한은 참전기간 영상촬영팀을 함께 파병해 자신들의 전투장면과 활동상 대부분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북한 공군이 미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영상뿐만 아니라 북한 공군의 전투 중 ‘실책’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예를 들

79) 이용평, 『기수를 삶으로 돌려라』, 177쪽.

80)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81)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

면, 북한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비행장에 착륙할 때 미 공군에 의해 피격을 당하는 모습, 비행장에서 대공포 발사 후 발생한 탄피가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서 생긴 사고, 미 공군기 격추 후 잠시 동안 기쁨을 느끼며 방심할 때 공격을 받아 추락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⁸²⁾

북한 공군의 참전경험은 공중전술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은 그동안 구축해놓은 군사교리와 전술의 실전 응용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 탈북조종사 이웅평에 따르면, 북한은 베트남에서의 전투경험을 발전시켜 철군 이후 지상에서의 유격전과 유사하게 ‘공군유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1976년경 공군 매복전, 공군 기습전, 공군 사냥전, 공군 교란전으로 구성된 ‘공군유격전’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조종사에게 새 전술을 교육시켰다.⁸³⁾ 공군의 유격전은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서 사용한 지상 유격전과 몇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통해 익히고 체계화시킨 공중매복 전술을 실전에 처음 사용한 것이 EC-121기 격추사건이다. 북한 공군은 1969년 4월 15일 동해 상공에서 미 해군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킬 당시 이 전술을 사용했다. 당시 북한은 함경북도 어랑비행장에 MiG-21기를 지상에 엄폐시켜놓고, EC-121기의 접근을 기다리다 기습적으로 출격해서 정찰기를 격추했다.⁸⁴⁾ 이것은 당시 EC-121기가 베트남에서

82)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는 베트남 파병 전 기간에 촬영한 이 영상을 조종사 교육과정 동안 모두 보면서 교육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83) 이웅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228~230쪽.

84) 이웅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228쪽; 북한소설에는 EC-121기 격추 조종사 중 1명이 베트남전쟁 참전조종사인 최봉호라고 했다. 정기중, 『운명』, 454쪽.

도 미 해군의 정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이 같은 참전경험을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 참전 조종사들을 공군사령부 산하 ‘전쟁연구소’에 배치하여 전장에서 경험한 비행전술을 연구하게 했다. 북한은 베트남 참전 조종사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동전쟁에 참전했던 조종사도 이곳에 배치해 전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⁸⁵⁾ 이처럼 참전의 경험은 북한 공군의 전력과 전술에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미쳤다.

2) 참전경험의 활용

북한의 참전경험은 공군의 전력증강과 전술변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베트남 참전사실과 당시의 기억을 현재로 호명(呼名)해 내부정치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식 기억의 정치의 한 사례였다.

북한은 2000년 이전까지 함구했던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2000년 이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2000년 3월 국내 연합뉴스가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에 관해 보도한 이후로 볼 수 있다.⁸⁶⁾ 이 보도 이후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태도

EC-121기 사건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신재, “EC-121기 사건과 한반도에 서의 미·소 협력,” 『군사연구』, 제139호(2015), 351~377쪽 참조.

85) 탈북자 A씨(전 북한 공군 조종사) 증언(2015.9.4).

86) 2000년 3월 29일 연합뉴스는 베트남 현지에 위치한 북한군 전사자 묘지의 실체를 확인,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은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첫 공식적인 증거물으로써 국내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는 기존과는 확연히 변화했다.

먼저, 북한은 2002년 9월 18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인민무력부 김양점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북한군 유해 인수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유해의 주인 공들을 ‘국제주의적 정신을 지니고 베트남 인민의 반미 항전에 참가 해서 싸우다가 희생’되었다고 소개했다.⁸⁷⁾ 전사한 조종사 유해는 평양으로 돌아와 ‘인민군 영웅 열사묘’에 안장되었다. 또 생존한 참전조종사들과 전사한 조종사 유가족들이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참전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⁸⁸⁾ 이후 북한의 소설과 기록영화에서도 관련 사실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2001년도에는 『김일성전집』을 통해 김일성의 과병부대 방문사실을 수록했고, 2012년도에는 ‘소설 『불멸의 역사』’시리즈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 2009년도에는 기록영화에도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보도했다. 2003년 6월에는 김정일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눈부신 전과’를 세운 공군 제855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⁸⁹⁾ 김정은도 2012년 5월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사실을 언급했다.⁹⁰⁾

그렇다면 2000년 이후 북한의 변화된 태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87) “김양점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베트남 항발,” 『조선중앙TV』, 2002년 9월 18일.

88) 『연합뉴스』, 2009년 10월 4일; 정기중, 『운명』, 439~440쪽. 북한은 베트남 참전 당시 전사한 조종사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처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사한 조종사 부인들은 북한군의 정치군관으로 선발했고, 일부는 각 시·군당의 지도원으로 선발했다. 또 조종사 자녀, 특히 남성에 대해서는 ‘대(代)를 이어 조종사로 키우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조종사로 양성했다. 탈북자 B씨(전 북한군 총정치국 정치군관) 증언(2015.4.3).

89)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647호(2003.6.9).

90)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4일.

국 언론보도의 영향에 따른 것인가? 물론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가 보도된 이상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군의 참전사실을 공개한 데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준비된 공개’였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베트남전쟁의 참전사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한은 1997년 김정일이 두 가지 방침을 제시한 이후 베트남전쟁에 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⁹¹⁾ 당시 김정일의 방침은 베트남전쟁 경험의 활용에 대한 강조였다. 즉 “혁명전통과 계급교양을 강조하면서, 우리(북한) 군인들이 베트남전쟁 등에서 활약한 것을 후세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활용하라”는 요지였다. 이것은 『조선의 힘, 선군정치와 위력』이라는 책자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발간되기도 했다 한다.⁹²⁾

김정일 지시 이후 내각 성단위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이 시행되었다. 당시 교육내용은 베트남전쟁에서 익힌 경험과 기억을 현재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또 인민무력부 전승사적관에 베트남전쟁 당시 촬영한 사진과 사용한 물품, 북한의 지원현황을 전시한 ‘베트남전쟁관’을 별도로 개설하고, 이곳에 북한 대학생들을 견학시키기 시작했다.⁹³⁾ 또 비슷한 시기 베트남전쟁 참전 조종사들을 각 대학으로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들은 미군과의 교전상황을 상기하

91) 이에 대해 탈북자 C씨(전 북한 외교관)에 따르면, 김정일의 두 가지 방침은 1997년 2월 17일과 1997년 3월 5일 두 번 있었다고 한다.

92)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자료실 등 북한자료 보관시설에 이 책자를 소장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93) 탈북자 C씨(전 북한 외교관)는 2002년 김일성종합대학 재학 당시 이곳을 견학했으며, 평양시내 대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시기 견학을 실시했다고 한다.

며,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내용의 교육을 시켰다.⁹⁴⁾ 이것은 북한이 이미 2000년 국내언론에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묘지가 공개되기 이전부터 참전사실을 공개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이를 실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변화된 태도는 김정일 선군정치의 활용과 베트남과의 새로운 외교관계 정립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베트남전쟁 참전경험을 불러오기 시작한 1997년은 김일성 사망 3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1998년 국방위원장으로 등장하는 김정일로서는 자신의 선군정치 ‘성공사례’로서 베트남 참전의 기억을 활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의 소재로 참전의 경험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를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전쟁에서 함께 피를 나눈 ‘혈맹’이었지만,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이어서 1979년 중국과 국경전쟁을 벌일 때 북한이 중국과 캄보디아를 지지하면서 냉각기에 들어섰다. 당시 베트남과 북한은 상대국에 있던 자국의 대사관을 철수시키기까지 했다. 이후 베트남이 경제에서 도이모이(Doi Moi), 즉 쇄신정책을 선택하고 1992년 12월 한국과 수교하면서 냉각은 좀처럼 복원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2000년 초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희망했고, 베트남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⁹⁵⁾

94) 탈북자 C씨(전 북한 외교관에 따르면, 당시 자신이 재학 중이던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5명의 참전조종사가 방문, 강연했다고 한다.

95) 2000년 이후 베트남 정부 고위당국자의 북한 방문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사실 공개와 활용은 베트남과의 관계 발전 속에서 베트남 측에 자신들의 참전 사실을 상기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2000년 이후 북한군 참전의 기억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선군정치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고, 외교적으로는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참전이라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필요에 의해 호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 공군은 1966년 말부터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의무와 군사적으로는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측면에서 파병을 결정하고, 1개 비행연대를 파병했다. 베트남의 노이바이와 캅이라는 두 곳의 기지에서 주둔했으며, 200여 명 이상의 조종사와 별도의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전쟁에 연인원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공군의 참전은 실질적인 전투부대로서 북한이 베트남에 파병했던 공병, 심리전 부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특히 한국이 연인원 32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공군 전투부대의 파병도 희망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것과 달리 북한은 공군전투부대를 파병했다는 점은 대비되는 부분이다.

사례로 2002년 5월 2일 천득령 베트남 주석이 50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방북한 것이다. 베트남 주석의 방북은 1957년 호치민 주석 방북 이후 45년만이었다. 권쾌현, “천득령 베트남주석, 북한 국민방문,” 『연합뉴스』, 2002년 5월 2일.

한 나라의 군대가 타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것은 국가적·이념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군대 자체의 실전 경험 축적과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참전의 경험과 기억은 계속해서 군대에 계승되고 활용되면서 전쟁하는 군대로 변모해가는 계기가 된다. 북한 공군은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파병되었고, 이때의 파병경험은 베트남전쟁 종전 후 북한군의 전력증강과 전술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참전부대를 모체로 곡산비행장에 1개 비행연대가 창설되었고, 베트남전쟁에서 익힌 공중매복, 공중유격의 비행전술은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 EC-121기 격추 시 활용되었다. 이후 제4차 중동전쟁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⁹⁶⁾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한국전쟁 때 궤멸되었던 공군력을 재건한 후 실전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또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등장하면서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호명하며, 선전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공군의 참전경험은 현재도 대미대결에서 중요한 선전소재가 되고 있다.⁹⁷⁾

냉전사학자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역사가를 ‘역사라는 풍경을 그리는 화가’로 묘사했다.⁹⁸⁾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그동안 역

96) 북한 공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북한의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 “애급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한 담화(1973년 5월 28일),” 『김일성전집』, 제5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김일성, “비행대전투원동무들에게—애급에 가 있는 비행사들에게 보낸 서한(1973년 11월 7일),” 『김일성전집』, 제5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김일성, “수리아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한 담화(1973년 10월 23일),” 『김일성전집』, 제53권; 『로동신문』, 2011년 2월 12일 등이다.

97) 그 일례로 북한은 자신들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B-52 전략폭격기가 광에서 한반도로 전개될 때 자신들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베트남전쟁 당시 B-52가 많이 격추당했다며, 선전하기도 했다. “북매체, 미 B-52폭격기 격추 ‘그래픽 영상’ 공개,” 『연합뉴스』, 2013년 3월 29일.

98) 존 루이스 개디스,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강규형

사의 풍경화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동시에 1960년대 한반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군 참전의 역사적 진실도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연구가 북한과 베트남의 제한된 자료 속에서 북한군 참전의 단편들을 모아서 입체적인 모자이크를 그리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한계는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공군뿐만 아니라 심리전, 고사포, 보병, 화학, 수송 등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⁹⁾ 또한 북한은 베트남전쟁 당시 참전의 대가로 북한산 농기구의 베트남 판매 및 1974년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자 원유 채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¹⁰⁰⁾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알려지거나 규명되지 못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후속연구가 나와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풍경화’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11월 1일 / 수정: 11월 15일 / 채택: 11월 30일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04).

99) 고영환, 『평양 25시』, 177~178쪽.

100) 이런 사실은 동남아시아 제3국의 비공개 문서인 “북괴의 대월맹 군사원조 협정 체결내용”(1979) 등에서 확인된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정기중, 『운명』(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66~196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2) 논문

김일성, “비행대전투원동무들에게—애급에 가 있는 비행사들에게 보낸 서한 (1973년 11월 7일),” 『김일성전집』, 제5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_____, “수리아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한 담화(1973년 10월 23일),” 『김일성전집』, 제5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_____, “애급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한 담화(1973년 5월 28일),” 『김일성전집』, 제5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_____, “웬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1966년 10월 19일 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김일성전집』, 제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_____, “축하문-조선인민군 제203부대 전투원들에게(1967년 5월 30일),” 『김일성전집』, 제3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3) 신문

『로동신문』.

『조선신보』.

4) 기타자료

『예술영화-백옥』(평양: 조선 4·25예술영화촬영소, 2009).

『조선중앙TV』.

2. 국내 자료

1) 1차 사료

국방부,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요청”(1964.7.23).

_____,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요청서”(1966.1.11).

_____,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요청”(1966.7.12).

“북괴의 대월맹 군사원조 협정 체결내용(동남아 제3국 문서, 1979).

수도사단 G-2, 『북괴공작단 침투』.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2.1.1~1972.12.31)』.

주월한국군사령부, 『부대현황(1967)』.

_____, 『지휘관 회의록(1968.4~6)』.

_____, 『주월사 훈령 72-1』(1971년 11월 8일).

_____, 『월남전 종합연구』(1974).

_____, 『월남전과 북괴의 심리전활동』(1968년 6월).

9사단, 『백마 6호작전 전투상보』(1968).

2) 단행본

개디스, 존 루이스(John Lewis Gaddis),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강규형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04).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고려원, 1993).

국가안전기획부, 『북괴조약집Ⅱ』(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88).

국방부 기획국, 『국방백서 1967』(서울: 국방부, 1966).

_____, 『국방백서 1968』(서울: 국방부, 1968).

국회도서관 자료국, 『북한의 조약집(1949~1982)』(서울: 국회도서관, 1982).

권쾌현, 『아주 특별한 베트남이야기』(서울: 연합뉴스, 2010).
 버뮤데즈, 조셉(Joseph S. Bermudez), 『북한과 테러리즘』, 조용관·유지웅 옮김(서울: 고려원, 1991).
 유제현, 『월남전쟁』(서울: 한원, 1992).
 이세호, 『한길로 삼겼던 내 조국: 별책 서한문집』(서울: 대양미디어, 2009).
 이웅평, 『기수를 삶으로 돌려라』(서울: 한울, 2000).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647호(2003.6.9).

3) 논문

도미엔(Do Mien),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군사』, 제96호(2015), 323~362쪽.
 이강수,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현황 및 과제,” 국가기록원, 『기록인』(2011), 26~33쪽.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 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군사』, 제89호(2013), 197~232쪽.
 _____, “과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군사』, 제96호(2015), 283~322쪽.
 _____,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 지원 고찰(1945~50),”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234~268쪽.
 _____, “EC-121기 사건과 한반도에서의 미·소 협력,” 『군사연구』, 제139호(2015), 351~377쪽.
 이웅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공군평론』, 제94호(1994), 226~244쪽.

4)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전우신문』.
 『조선일보』.
 『주간조선』.

『통일뉴스』.

3. 국외 자료

1) 미국 자료

Bonds, Ray ed., *The Vietnam War*(New York: Crown Publishers, 1979).

Comprehensive Report of the U.S. Side of the U.S.-Russia Joint Commission on POW/MIAs(1996.6).

Harry Eckstein,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The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Reading, Mass. etal.: Addison, Wesley, 1975), pp. 79~138.

James G. Zumwalt, *Bare Feet Iron Will*(Florida: Fortis Publishing, 2010).

KPA Journal, Vol. 1, No.9(September, 2010).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KIDP E-Dossier #2*(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1).

New York Times.

Stanley Robert Larsen & James Lawton Collins, Jr,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Washington D.C.: Dept. of the Army, 2008).

Wilfred G. Burchett, *Again Korea*(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Xiaoming Zhang, “Communist Powers Divided: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Vietnam War,” Lloyd C. Gardener and Ted Gittinger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Vietnam*(Texas: A&M Univ. Press, 2000), pp.77~97.

2) 베트남 자료

Bo quoc phong VLSQVN, 『Lịch sử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Tập V: tổng tiến công và nổi dậy 1968』(NXB Chính trị QG, 2001).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ã hội chủ nghĩa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NXB Chính trị QG, 2000).

『Tuổi Trẻ CUỐI TUẦN』.

3) 일본 자료

宮本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ベトナム派兵,” 現代韓國朝學會 編, 『現代韓國朝鮮研究』(東京: 新書館, 2003), 58~67쪽.

_____,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とベトナム戦争(1),” 『聖學院大學綜合研究所紀要』, 제55호(2013), 292~310쪽.

_____,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とベトナム戦争(2),” 『聖學院大學綜合研究所紀要』, 제57호(2014), 211~237쪽.

4. 증언 탈북자 현황

구분	연령	성별	입국연도	인터뷰 일자	주요경력
탈북자 A씨	55세	남	1996	2015. 9. 4.	전 북한 공군 조종사
탈북자 B씨	66세	남	1998	2015. 4. 3.	전 북한 총정지국 정치군관
탈북자 C씨	40세	남	2009	2015.11.16.	전 북한 외교관
탈북자 D씨	67세	남	1995	2016. 2.23.	전 북한 인민무력부 상좌

The North Korean Air Force's Participation on Vietnam War

Lee, Sin Jae(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t is an obvious historical fact that North Korean military's participation on Vietnam War. But It is hardly studied until nowadays despite the historical importance. As a result, North Korean military's participation on Vietnam War remain blank in the North Korean study.

This study focus on North Korean Air Force's participation on Vietnam War. The reason is below. Air Forces's participation is the most known than other military, and it is really combat forces. Especially, this study seek to find that participation's background,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ipation's contents and impact.

This study has a certain limitations to find related document. However, this study have a meaning as a pioneering attempt about North Koreans participate on Vietnam War. It is expected to be a stepping stone for future further study.

Keywords: Vietnam War, Vietnam, North Korea, North Korean Air
Force, Participation on war, dispatch troops, Hanoi